



의약품 관세율에 대한 시장 영향과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수입에 최대 200% 관세 부과를 검토하며, 제약사의 미국 제조(리쇼어링)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관세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즉시 발효되는 것도 아님. 1~1.5년 유예기간이 예고됨. 산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생산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음.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시장은 '말(word)'보다는 '행동(Action)'을 기다리고 있어 이로 인한 단기 주가 영향 제한적.

◎ FACT: 트럼프, 의약품 수입에 200% 관세 검토

>>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 부과하겠다고 위협.

다만, 즉시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제약사 제조시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략 1년~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며, 그 이후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

>> 상무장관, "구체적 정책은 이달 말 추가 세부사항 발표 예정"

>> 시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25%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200%는 다소 놀라운 수준. 다만, 아직 관세율 확정된 것이 아님.

◎ 의도: 리쇼어링 본격 착수하라

>> 제약업계의 미국 제조 이전(리쇼어링) 압박 가중되고 있음.

>>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이 미국내 제조시설 투자를 줄지어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투자 발표만 한 것인지, 실제 착공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음.

관세율 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명령과 국가우선바우처(CNPV) 신규 제도 등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리쇼어링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관세율을 단기에 확정할 경우, 의약품 가격 상승 반발과 리쇼어링 약화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의 카드로 활용.

◎ 불확실성 잠재하나, 우려 다소 완화. 주가 영향 제한적.

>> 아직 의약품 관세율 확정되지 않고 유예. 관세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었음.

(7/9일 SPDR S&P 바이오테크ETF XBI +1.4%, iShare 바이오테크 IBB +0.9%, ProShare 울트라 나스닥 바이오테크 BIB +1.8%)

국내업체들 역시 연초부터 관세 대응 방안으로 재고 비축과 미국 CMO 계약 등을 마련해왔음.

>> 1년~1년반까지 관세율에 대한 불확실성 잠재하나, 당분간 관세율 발표가 없다는 안도감에 우려 다소 완화.

특히, 미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CDMO 업체들의 경우 공급망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별개로 전일 머크가 키트루다 특허만료 수익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Verona \$10bn 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여전히 빅파마는 R&D 투자 및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대한 국내 기업별 미국 비중과 대응방안

기업명	미국 비중	주가 YTD	비 고
삼성바이오	26%	7%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셀트리온	29%	-2%	15~21 개월 재고 확보 및 사전 미국 CMO 계약하여 대비
SK 바이오팜	80%	-16%	재고 확보 및 DP 미국 CMO 계약하여 사전에 대비
유한양행	1~2%	-9%	수출물량 대부분은 유럽향
녹십자	4%	-26%	재고 확보 및 미국산 원료 혈장에 대한 관세 면제 타진

주: 주가 2025/07/09 기준, 미국 비중은 2024년 기준
자료: 전자공시,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제조 시설 투자 언급한 주요 다국적 제약사

(\$ mn)

행정부	회사명	발표연도	투자금액	지역	비고
오바마	베링거인겔하임	2011.11월	350	Connecticut 등	신약 안전성 평가센터, 백신 연구 시설 등
	Baxter	2012.4월	1,000	Georgia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BMS	2013.5월	250	Messachusetts	바이오로직스 생산시설 확장
	Roche	2013.10월	280	California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Novo Nordisk	2015.8월	1,800	North Carolina	당뇨병 치료제 생산 시설
트럼프 1기					
2017/1/20~	Lilly	2017.3월	850	Indiana	연구시설, 제조공장 확충 이 중 트루리티티 공장 증설에 \$85m
2021-01-20		2017.11월	72	Indiana	위 계획 일환으로 인솔린 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GSK	2017.5월	139	Maryland	벨리무맙 생산 시설 확대 결정
	Pfizer	2018.1월	5,000	US	18년~22년 미국 내 50억 달러 규모 투자 결정
		2018.6월	465	Michigan	위 계획 일환으로 멸균 주사제 생산 시설 증설
	Novo Nordisk	2018.2월	65	North Carolina	당뇨병 치료제 완제품 공장 추가 확장
	Novartis	2018.5월	55	North Carolina	유전자 치료제 생산공장 확장
	WuXi Biologic	2018.6월	60	Massachusetts	신규 CDMO 생산거점 투자
	Merck	2019.5월	1,000	Virginia	HPV 백신(가다실) 생산공장 증설
바이든					
2021/1/20~	Fujifilm Bio	2021.3월	2,000	North Carolina	세포 배양 CDMO 시설
2025-01-20		2024.4월	1,200	North Carolina	세포 배양 CDMO 시설 확장
	Lonza	2024.3월	1,200	California	Roche 공장 인수. \$557mn 투자하여 시설 업그레이드
	Novo Nordisk	2024.6월	4,100	North Carolina	주사제 생산 공장 신설
	Kyowa Kirin	2024.6월	530	North Carolina	바이오리액터 생산 시설
	BeiGene	2024.7월	800	N.J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및 R&D
	Lilly	2024.10월	4,500	Indiana	의약품 연구 및 생산 시설
		2024.12월	3,000	Wisconsin	의약품 생산 시설 추가 확장
	J&J	2024.10월	2,000	North Carolina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GSK	2024.10월	800	Pennsylvania	신규 의약품 제조 시설
	AstraZeneca	2024.11월	3,500	Massachusetts	R&D센터
				Maryland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West/East Coast	세포 치료제 생산시설
	Amgen	2024.12월	1,000	Mississippi	바이오로직스 생산 시설 확장 및 추가 투자
트럼프 2기					
2025/1/20~	Lilly	2025.2월	27,000	-	미국 내 4개의 제조 시설 신규 건설
현재	Pfizer	2025.3월	-	-	해외 제조 시설 미국 이전 가능성 언급
	J&J	2025.3월	55,000	-	2029년까지 미국내 3개 제조 시설 포함하여 투자 계획
	Novartis	2025.4월	23,000	San Diego etc	2030년까지 R&D, 4개의 제조 시설 신규 건설
	Roche	2025.4월	50,000	Indiana, Penn etc	2030년까지 R&D, 신규 및 제조 시설 확장
	Merck	2025.4월	9,000	-	신규 제조 시설 확장
	AbbVie	2025.4월	10,000	-	향후 10년간 비만 치료제 등 관련 제조 시설 확장 계획 발표
	Merck	2025.4월	1,000	Delaware	Keytruda 제조 시설 투자
	Amgen	2025.4월	900	Ohio	2028년까지 제조 시설 투자 결정
	BMS	2025.5월	40,000	-	2030년까지 방사선 의약품 생산 확대 및 R&D, 제조 투자
	Gilead	2025.5월	11,000	-	2030년까지 \$5B 기술, 운영, R&D 시설. \$4B 실험실과 장비
					투자, \$2B는 디지털 및 첨단 엔지니어링 사업 투자
	Sanofi	2025.5월	20,000	-	2030년까지 미국에 최소 200억 달러 투자 계획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9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 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